

2024년 1-2

#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1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 례 〉

〈 요 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 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1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2023년 4분기 美 경제 3.3% 성장, 中 성장률 5.2% 기록

- 미국은 12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4분기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세와 수출 증가 등으로 전기비 3.3%를 기록
- 일본은 11월 생산 감소와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일본은행(BOJ)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상향하고, 유로존 역시 11월 실물지표들의 부진 속에 역대 최대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 중국은 12월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4분기와 2023년 경제성장률이 5.2%를 기록하고, 인민은행이 기준율 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발표
- 달러화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와 美 국채금리의 상승 전환,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강세 지속
- 유가는 연초에 홍해 지역의 선박 운행 중단 등으로 제한적 등락을 보이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한파 지속,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세

###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비 0.6%, 2023년 1.4% 성장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전월비 3.3%)를 보이고, 서비스업생산도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전월비 증가(0.5%)

### □ 금융 : 12월 기업대출 감소 및 가계대출 둔화, 1월 중순(1월 11일 ~ 25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세

-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동반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감소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초 이후에 한은의 매파적 기초 약화로 일시 하락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으로 재차 상승
-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와 홍해發 중동 지역 불안,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면서 상승

#### □ 산업별 동향 : 1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5.3%, 서비스업생산 +1.9%

- 제조업생산은 기계장비와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와 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5.3%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제조업ICT와 중공업은 생산 증가세가 확대, 경공업은 생산 감소폭이 축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1.9% 증가

#### □ 고용 :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 수출입 : 12월 수출 +5.0%, 수입 -10.8%, 무역수지 45억 달러 흑자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0% 증가한 576억 달러, 수입이 10.8% 감소한 532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주요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인도·아세안·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지난 2023년 4분기중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1. 해외경제

### □ 미국 : 12월 실물지표 소폭 증가, 2023년 4분기 실질GDP 3.3% 성장

○ 지난해 12월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체감지표들의 반등과 선행지수 하락세 둔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고조. 4분기 성장률은 소비와 투자의 동반 증가세 및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기비 3.3%를 기록

- 산업생산이 유틸리티(전월비 -1.0%) 부문의 감소에도 광업(0.9%)과 제조업(0.1%)의 동반 증가로 전월보다 소폭 증가(0.1%)하고, 소매판매는 주유소(-1.3%) 판매 등 감소에도 자동차·부품(1.1%) 판매 등 증가로 확대(0.6%)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수주 감소에도 생산·고용 증가와 재고 감소 등에 힘입어 전월(46.7)보다 상승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현재 평가지수(148.5)와 미래 기대지수(85.6)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최고치
- 비농업 일자리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확대(11월 17만 개 → 12월 22만 개)되고, 경기선행지수는 추가 하락폭이 축소(11월 -0.5% → 12월 -0.1%)
-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소비(전기비 2.8%)와 투자(1.0%)의 동반 증가, 수출 증가(6.3%) 등에 힘입어 3.3%를 기록하고, 연간 전체 성장률은 2.5%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2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1.9	2.5	2.1 (2.4)	4.9 (2.9)	3.3 (3.1)				
산업생산 (IT생산)	3.4 (2.4)	0.2 (8.0)	0.2 (6.2)	0.5 (4.9)	-0.8 (4.3)	0.1 (1.2)	-0.8 (1.6)	0.0 (1.7)	0.1 (0.9)
내구재수주	8.3	-	5.4	-1.1	-	4.0	-5.1	5.4	-
소매판매	9.7	3.4	0.1	1.7	1.0	0.8	-0.3	0.3	0.6
소비자물가	8.0	4.1	0.7	0.9	0.7	0.4	0.0	0.1	0.3
실업률(%)	3.6	3.6	3.6	3.7	3.8	3.8	3.9	3.7	3.7
무역수지(10억U\$)	-951.2	-	-203.8	-184.7	-	-61.2	-64.5	-63.2	-
ISM 제조업지수 <sup>1)</sup>	53.5	47.1	46.7	47.7	46.9	49.0	46.7	46.7	47.4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04.5	105.6	105.4	109.0	103.6	104.3	99.1	101.0	110.7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5.1	106.3	106.9	105.4	103.3	104.7	103.7	103.2	103.1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11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올해 경제성장률 1.2%로 상향

- 11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내수 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9개월 만에 하락하고,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세. 일본은행(BOJ)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물가임금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하향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1.2%로 상향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2.6	1.0	1.2	0.9	-0.7				
광공업생산	5.8	0.0	-1.8	1.4	-1.2	-0.7	0.5	1.3	-0.9
민간기계수주	6.0	5.5	2.6	-3.2	-1.8	-0.5	1.4	0.7	-4.9
소매판매	2.0	2.6	2.5	0.5	2.5	0.2	0.4	-1.7	1.1
소비자물가	-0.2	2.5	0.5	0.7	0.8	0.2	0.3	0.7	-0.1
실업률(%)	2.8	2.6	2.6	2.6	2.7	2.7	2.6	2.5	2.5
무역수지(10억엔)	-1,784	-19,966	-5,185	-1,779	-942	-943	65	-667	-780
경기선행지수 <sup>1)</sup>	114.3	112.0	108.3	108.8	109.1	109.5	109.3	108.9	107.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12월 소비 둔화·수출 확대, 2023년 4분기 성장률 5.2%로 상승

- 12월 소비 둔화와 수출 확대 등 내·외수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 우려가 부상.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높아지면서 연간 전체 성장률도 5.2%를 기록한 가운데 인민은행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기준을 인하와 장기유동성 공급을 단행(1.24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6.3	4.9	5.2				
산업생산	3.4	4.6	4.5	4.2	6.0	4.5	4.6	6.6	6.8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3.8	3.1	3.0	3.1	2.9	2.9	3.0
소매판매	-0.8	7.8	11.4	4.2	8.4	5.5	7.6	10.1	7.4
소비자물가	2.0	0.2	0.1	-0.1	-0.2	0.0	-0.2	-0.5	-0.3
수출(달러화기준)	5.6	-4.6	-4.8	-9.9	-1.3	-6.8	-6.6	0.5	2.3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 유로존 : 11월 실물지표 부진, 역내 최대국 독일 '23년 마이너스 성장

- 11월 역내 실물지표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마이너스(-0.3%)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 증폭

###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1	2022	2023						
	연간	연간	1/4	2/4	3/4	8월	9월	10월	11월
국내총생산(실질GDP)	5.9	3.4	0.0	0.2	-0.1				
산업생산	8.8	2.2	-1.6	-1.2	-1.4	0.4	-0.8	-0.7	-0.3
소매판매	5.1	0.9	-0.1	-0.1	-0.4	-0.8	0.0	0.4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8.4	8.0	6.2	5.0	5.2	4.3	2.9	2.4
무역수지(10억유로)	97.3	-342.8	-7.0	2.3	24.6	11.3	9.2	11.2	14.8
경제체감지수 <sup>1)</sup>	110.7	101.9	99.0	96.8	94.0	93.8	93.6	93.7	94.0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 유가 상승세

- 달러화는 1월 들어 미국의 견고한 소비 및 인플레이 둔화로 인한 경기 연착륙 기대감 속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와 美 국채금리의 상승 전환,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 등의 영향으로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강세 지속
- 유가는 연초 홍해 지역의 선박 운행 중단과 사우디 아람코社의 원유 가격 인하 발표,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 등으로 제한적 등락을 보이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한파 지속,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세

###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3										202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5일	
엔/달러	136.30	139.34	144.31	142.29	145.54	149.37	151.68	148.20	141.04	147.66	
달러/유로	1.1019	1.0689	1.0909	1.0997	1.0843	1.0573	1.0575	1.0888	1.1039	1.0846	
미 국채 (10년만기)	3.42	3.64	3.84	3.96	4.11	4.57	4.93	4.33	3.88	4.12	
WTI유	76.8	68.1	70.6	81.8	83.6	90.8	81.0	76.0	71.7	77.8	
두바이유	78.9	72.1	76.1	85.6	87.2	92.9	86.7	84.3	76.5	80.5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4분기 실질GDP 성장률 전기비 0.6%, 2023년 1.4% 성장

○ 지난해 4분기 국내 실질GDP는 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전기비 0.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3년 전체 성장률이 1.4%를 기록

- 민간소비가 2분기 연속 증가(전기비 0.3%)한 가운데 건설투자가 대폭 감소(-4.2%)한 반면, 설비투자가 증가(-2.7%)하고, 수출(2.6%) 증가세가 유지됨에 따라 순수출 규모가 확대(33조원 → 37조원)되면서 성장에 일조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GDP성장률	2.6*	1.4*	0.9* (0.6*)	1.4* (0.6*)	2.2* (0.6*)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1*	1.8*	1.6* (-0.1*)	0.2* (0.3*)	1.0* (0.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9*	0.5*	4.7* (0.5*)	-4.2* (-2.2*)	-3.8* (3.0*)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2.8*	1.4*	1.7* (-0.8*)	3.8* (2.1*)	-1.6* (-4.2*)	-	-	-	-
전산업생산지수	4.6	-	-0.5 (0.3)	0.8 (1.1)	-	1.2 (1.9)	2.7 (1.1)	0.8* (-1.8*)	2.5* (0.5*)
광공업생산지수	1.4	-	-7.6 (3.1)	-2.0 (1.9)	-	-0.8 (5.2)	3.0 (1.8)	0.9* (-3.8*)	5.3* (3.3*)
제조업생산지수	1.4	-	-7.8 (3.3)	-2.1 (1.8)	-	-0.8 (5.3)	3.0 (1.9)	0.9* (-3.8*)	5.3* (3.3*)
서비스업생산지수	6.7	-	2.3 (-0.3)	1.9 (0.7)	-	1.6 (0.2)	2.1 (0.5)	0.8* (-0.9*)	1.9* (-0.1*)
소매판매액지수	-0.3	-	-0.2 (-0.3)	-2.8 (-2.6)	-	-4.7 (-0.3)	-2.0 (0.1)	-4.5* (-0.8*)	-0.3* (1.0*)
설비투자지수	3.3	-	-1.2 (1.3)	-10.6 (-3.5)	-	-14.6 (4.1)	-5.6 (8.7)	-9.9* (-3.6*)	-11.9* (-2.6*)
건설기성(불변)	2.7	-	8.9 (-0.8)	10.5 (1.0)	-	10.0 (2.5)	11.3 (0.2)	3.5* (0.0*)	1.4* (-4.1*)
동행종합지수(2020=100)	108.2	-	110.2	110.0*	-	110.0	110.0*	110.1*	110.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9	-	100.2	99.4*	-	99.4	99.2*	99.0*	98.9*
선행종합지수(2020=100)	108.7	-	109.9	111.5*	-	111.4	111.9*	112.4*	112.9*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	98.7	99.3*	-	99.3	99.4*	99.7*	99.9*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11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과 달리 증가세(전월비 3.3%)를 보이고, 서비스업생산이 소폭 감소(-0.1%)에 그치면서 전월 대비 증가 전환(0.5%)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2.8%) 등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3.3% 증가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0%)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감소폭이 축소(-0.1%)
  -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의 증가세 확대(전월비 2.6%)와 비내구재(0.6%) 판매의 동반 증가세로 전월비 증가 전환(1.0%)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기계류(-1.5%)와 운송장비(-5.7%)의 동반 감소 여파로 2개월 연속 감소(-2.6%)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내수출하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수입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개월 연속 상승(전월비 0.1%)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코스피지수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하락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0.4%)

□ 물가 : 12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2%

- 12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1.8%)에서 상당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료품·비주류음료(0.6%)와 음식·숙박(0.4%),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3.3% → 3.2%)
- 12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 상승(전월비 -2.7% → 4.9%)과 서비스 가격의 소폭 상승(0.0% → 0.2%), 공산품 가격의 하락폭 축소(-0.8% → -0.4%) 등으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전월비 0.1%, 전년동월비 1.2%)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5.1	3.6	3.3 (0.6)	3.1 (1.0)	3.4 (0.7)	2.4 (0.1)	3.4 (0.9)	3.7 (0.5)	3.8 (0.4)	3.3 (-0.5)	3.2 (0.0)
근원물가	4.1	4.0	4.3 (0.9)	3.7 (0.5)	3.3 (0.6)	3.8 (0.0)	3.7 (0.2)	3.7 (0.2)	3.5 (0.4)	3.2 (-0.1)	3.1 (0.2)
생산자물가	8.4	1.6	0.6 (-0.3)	0.7 (0.7)	0.2* (0.8*)	-0.3 (0.3)	1.0 (0.9)	1.4 (0.5)	0.7 (-0.1)	0.6 (-0.4)	1.2* (0.1*)
근원물가	6.4	1.0	0.3 (0.1)	0.3 (0.1)	0.7* (0.2*)	-0.4 (0.0)	0.5 (0.5)	0.8 (0.2)	0.7 (0.1)	0.6 (-0.3)	0.9 (0.1)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12월 기업대출 감소 전환 및 가계대출 둔화

- 지난해 12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계절요인에 기인하여 전월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기준 역시 감소 전환  
(2023년 11월 +7.3조원 → 12월 -5.9조원, 대기업 -2.0조원, 중소기업 -3.9조원)
  - 대기업 대출은 기업들의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한도대출 상환 등이 이루어지면서 운전자금 중심으로 전월비 감소 전환
  - 중소기업 대출 역시 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상각, 기업들의 연말 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상당폭 감소
- 회사채는 일부 기업들의 자금수요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순발행 기조로 전환  
(2023년 11월 -0.9조원 → 12월 +0.3조원)
- CP·단기사채는 연말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이어 순상환 규모가 확대  
(2023년 11월 -2.1조원 → 12월 -4.6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과 달리 소폭 증가  
(2023년 11월 +3.4조원 → 12월 +0.6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원화대출	89.2	-2.9	104.8	-9.4	77.4	8.1	7.3	-5.9	1,247.7
(대 기 업)	7.1	-1.9	37.6	-6.1	31.9	4.3	1.5	-2.0	247.8
(중소기업)	82.1	-1.0	67.2	-3.3	45.5	3.8	5.8	-3.9	999.9
〈개인사업자〉	37.0	1.1	19.7	-0.8	7.5	0.5	0.9	-1.0	450.2
■회사채 순발행	16.2	-0.8	-5.9	0.6	-0.9	-2.3	-0.9	0.3	..
■CP 순발행	4.1	-3.0	23.5	1.5	-1.0	2.5	-2.1	-4.6	55.5
■주식발행	28.9	0.6	21.7	0.6	11.0	0.6	3.4	0.6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12월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약간 줄어들고, 기타대출 감소 규모가 상당폭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2023년 11월 +5.4조원 → 12월 +3.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3년 11월 +5.7조원 → 12월 +5.2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연말 상여금 유입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 계절요인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감소 규모가 확대  
(2023년 11월 -0.4조원 → 12월 -2.0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1		2022		2023				23.12월말 잔액
	연중	12월	연중	12월	연중	10월	11월	12월	
은행 가계대출	71.8	-0.2	-2.6	0.3	37.0	6.7	5.4	<b>3.1</b>	1,095.0
■주택담보대출	56.9	2.0	20.0	3.1	51.6	5.7	5.7	<b>5.2</b>	850.4
■기타대출	14.7	-2.2	-22.9	-2.9	-14.5	1.0	-0.4	<b>-2.0</b>	243.3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1월 중순(1월 11일 ~ 25일) 금리 및 원/달러 상승세

- 국고채(3년) 금리는 연초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따른 美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동반 상승한 이후, 한은의 매파적 기초 약화로 일시 하락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등으로 재차 상승  
(1월 11일 3.227% → 1월 25일 3.313%, +0.09%p)
- 원/달러 환율은 올 들어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약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 국내 증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홍해궤 중동 지역 불안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면서 추가 상승세  
(1월 11일 1,312.9원 → 1월 25일 1,335.8원, +22.9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1		2022		2023				2024
	4/4	2/4	3/4	4/4	1/4	2/4	3/4	12월	1.25일
국고채(3년)	1.80	3.55	4.19	3.72	3.27	3.66	3.88	3.15	<b>3.31</b>
회사채(3년, AA-)	2.42	4.36	5.28	5.23	4.07	4.47	4.64	3.90	<b>4.06</b>
CD(91일)	1.29	2.04	3.24	3.98	3.59	3.75	3.83	3.83	<b>3.68</b>
CP(91일)	1.56	2.34	3.30	5.28	4.01	4.02	4.08	4.32	<b>4.28</b>
원/달러	1,188.8	1,298.4	1,430.2	1,264.5	1,301.9	1,317.7	1,336.5	1,288.0	<b>1,335.8</b>
원/100엔	1,030.2	946.5	993.3	953.2	981.4	907.0	901.3	912.7	<b>907.3</b>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5.3%, 전월비 +3.3%

- 제조업생산이 기계장비(-13.8%)와 전자부품(-9.9%), 섬유제품(-2.2),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42.4%)를 비롯해 1차금속(11.2%), 기타 운송장비(6.0%)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5.3% 증가('23년 5월 이후 최대 폭)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5.9%)와 중공업(6.8%)에서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된 반면, 경공업(-3.0%)에서는 감소폭이 전월보다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자동차(-3.3%)와 1차금속(-5.7%), 전자부품(-3.8%) 등에서 감소한 반면, 반도체(12.8%), 기계장비(8.0%), 화학제품(2.8%), 섬유제품(2.1%), 기타운송장비(1.5%)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3.3% 증가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1.8)는 전자부품과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상승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6% 상승(2개월 연속 상승세)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4.3%로 전월 대비 8.9%p나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11월중 재고 증가폭(8.9% → 3.1%,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이 축소된 반면, 출하가 전월과 달리 증가 전환(-1.6% → 6.2%)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

### □ 서비스업생산 : 11월중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1%

-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5%), 숙박·음식점(-3.3%) 등에서 감소한 반면, 운수·창고(5.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4.0%), 전문·과학·기술서비스(3.6%), 정보통신(0.6%)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1.9% 증가
  - 전월비로는 도소매(1.0%)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0.1%) 등에서 증가하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0.5%)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운수·창고(-1.4%), 숙박·음식점(-0.4%) 등에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0.1%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1.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1.8% 증가

#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0년)	2021	2022	2023						
				1/4	2/4	3/4	9월	10월*	11월*	전월비*
<b>광공업 (원지수)</b>	10,000	108.2	109.7	99.5	104.6	106.2	109.0	106.7	11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2	1.4	-9.7	-7.6	-2.0	3.0	0.9	5.3	3.3
<b>제조업 (원지수)</b>	9,569.5	108.4	109.9	98.8	105.2	106.5	109.7	107.4	112.8	-
전년동기비 증감률	-	8.4	1.4	-10.0	-7.8	-2.1	3.0	0.9	5.3	3.3
섬 유	113.4	2.0	-3.5	-7.8	-9.1	-6.9	-4.6	-5.2	-2.2	2.1
화 학	854.2	8.6	-9.9	-20.4	-16.1	-3.1	0.9	-0.4	2.9	2.8
철 강	496.6	5.2	-8.5	-6.5	-2.6	3.4	21.1	26.4	17.5	-6.6
반도체	2,023.8	26.8	7.6	-33.8	-18.6	4.7	23.6	13.1	42.4	12.8
컴퓨터, 주변장치	32.4	27.5	11.0	0.7	-14.7	-17.2	8.4	7.6	-26.6	-28.2
통신, 방송장비	171.0	23.5	-5.1	17.6	-12.6	-10.2	-18.4	-22.5	-5.4	14.8
의료, 정밀, 광학	217.2	17.8	6.6	-4.3	-13.9	-14.6	-14.2	-12.3	-14.9	-1.8
기계, 장비	737.3	12.1	1.1	0.7	-6.5	-12.7	-9.4	-13.5	-13.8	8.0
자동차	987.5	6.3	9.1	21.6	15.4	4.7	-0.1	2.5	-2.0	-3.3
조 선	66.0	-7.2	20.7	19.6	4.6	9.3	9.7	-4.1	-8.0	1.0
- 중 공 업	-	9.9	1.5	-10.7	-7.7	-1.5	4.1	1.9	6.8	3.7
- 경 공 업	-	1.3	0.4	-5.6	-8.3	-5.8	-3.2	-4.1	-3.0	1.4
- 제조업ICT	-	19.3	2.2	-30.5	-19.1	-1.4	12.3	6.7	25.9	9.3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05.0	112.0	111.8	115.2	114.6	115.6	114.4	115.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5.0	6.7	6.4	2.3	1.9	2.1	0.8	1.9	-0.1
도소매	193.9	4.3	2.7	2.8	-1.1	-1.9	-0.3	-3.6	-1.5	1.0
운수및창고	78.4	4.2	17.7	17.3	9.5	8.7	10.3	6.2	5.0	-1.4
숙박및음식점	44.4	1.9	16.9	16.3	-2.7	-4.7	-1.2	-5.3	-3.3	-0.4
정보통신	88.9	12.2	1.7	-1.7	-3.8	-1.8	-3.9	-0.9	0.6	0.0
금융및보험	167.4	8.0	8.4	10.7	7.1	4.7	1.7	1.5	3.8	-0.7
부동산	38.7	2.3	8.0	4.1	3.0	2.3	1.6	-1.3	-1.0	-0.4
전문·과학및기술	95.8	2.8	2.0	1.8	2.6	2.5	2.7	2.7	3.6	0.1
사업시설관리 등	53.6	2.3	5.2	5.6	3.5	3.4	3.9	3.2	4.0	-0.5
교 육	73.5	1.5	1.2	1.1	0.2	1.3	1.8	1.2	2.1	0.4
보건및사회복지	111.3	5.1	7.2	5.7	3.5	5.1	5.7	5.6	4.2	0.7
예술·스포츠및여가	17.5	15.4	43.6	20.8	7.0	-2.0	4.5	1.4	5.6	-3.1
협회·수리및개인	24.0	1.9	4.4	13.8	5.4	5.5	3.2	4.8	6.1	-2.0
수도·하수및폐기물	12.6	2.3	-4.7	0.6	-1.6	-0.9	-1.0	-2.3	-2.1	0.4
- ICT서비스업	-	6.2	5.5	2.2	0.8	1.7	0.5	-0.3	1.1	1.8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 5. 고 용

### □ 취업자 수 : 12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1.0% 증가

○ 지난해 12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상당폭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확대되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전월 수준을 유지(1.0% → 1.0%)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0.2%)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0.1% → -2.0%)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는 소폭 확대(1.3% → 1.4%)
-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2022년 5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1.5% → 3.4%)를 보이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0.3% → 0.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부문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3.0% → 3.5%)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2.1% → 3.0%), 정보통신업(5.4% → 8.8%)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확대된 영향에도,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6.8% → 3.5%)에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1.9% → -1.0%)도 감소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율이 하락(1.2% → 0.8%)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3%로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 산 업	28,089	28,416	28,693	28,687	28,518	28,678	28,698	28,764	28,698	28,093
전년동기비	3.0	1.2	1.2	0.9	1.1	0.9	1.1	1.2	1.0	1.0
농림·어업	4.6	-0.8	-0.3	-1.3	-0.3	-1.1	-0.2	1.0	-0.1	-2.0
제 조 업	3.1	-0.9	-1.1	-1.3	-0.6	-1.5	-1.6	-1.7	-0.3	0.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8	1.5	1.5	1.6	1.7	1.8	1.3	1.4
건 설 업	1.6	-0.4	-2.4	-0.1	1.8	0.0	1.7	0.6	1.5	3.4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1.8	1.0	0.6	0.9	0.9	1.1	0.3	0.3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1.3	1.2	3.4	1.0	2.0	3.6	3.1	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2.8	2.2	1.3	2.4	2.0	1.8	1.2	0.8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6	2.6	2.9	2.4	2.6	2.5	2.8	3.3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12월 수출 5.0% 증가, 수입 10.8% 감소, 무역수지 45억 달러 흑자

○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5.0% 증가한 576억 달러, 수입이 10.8% 감소한 532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4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를 비롯한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주요 품목들과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장비 관련 품목들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데다, 지역별로는 미국·인도·아세안·일본 등지로의 수출이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수출이 2023년 4분기중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이 낮은 국제가격 등으로 상당폭 감소(-17.6%)하고, 非에너지 수입도 8.2% 감소하면서 두 자릿수 감소율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88.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2% 낮은 수준이고, 도입물량도 1.7%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4.7% 감소한 약 79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출	6,836 (6.1)	6,324 (-7.5)	1,558 (-12.0)	1,571 (-9.7)	1,682 (5.8)	520 (-8.1)	547 (-4.4)	550 (4.9)	556 (7.4)	576 (5.0)
수 입	7,314 (18.9)	6,426 (-12.1)	1,593 (-13.2)	1,507 (-21.6)	1,586 (-10.7)	510 (-22.7)	510 (-16.4)	534 (-9.7)	520 (-11.6)	532 (-10.8)
무역수지	-478	-102	-35	64	96	10	37	16	36	45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ICT(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와 장비(자동차·선박·기계) 중심 수출 증가

○ 반도체 : IT기기(PC·모바일·서버)의 재고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전반적인 업황 회복세 속에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2022년 3월 이후 최고치 증가율)

- **자동차** :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도 고부가가치 차량(친환경차·SUV) 판매의 증가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2022년 6월부터 18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주요국(미국·EU)들의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른 내연차 부품 수요 감소와 현지공장 증설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등의 여파로 수출이 감소
- **선박류** : 지난 2021년 이후에 수주 받은 선박 물량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컨테이너선·LNG선) 중심의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감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IT제품 및 자동차 등 신시장 분야의 OLED 탑재 확대, 스마트폰 패널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견조한 수요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고부가가치 부품이 탑재된 고가형 모델 판매 비중의 확대와 전년동기에 발생한 폭스콘 파업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역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감소 전환
- **철강** : 판재류 등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업황 회복세에도 주요 수출시장(중국)의 철강 수요 정체기와 단가 약세 지속 등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
- **섬유** : 연말 프로모션 등으로 아세안 소싱처의 신규 오더가 소폭 증가함에도 여타 신흥국(중동·중남미) 수요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이 재차 감소
- **석유제품** : 여객 수요 회복에 따른 미국 등지로의 항공유 수출 증가에도 최근 유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세
- **석유화학** :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단가의 하락 지속에도 신규 설비 증설과 유희설비 재가동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일부 수출시장(중국·EU)에서 신규 주문이 감소한 영향에도, 미국·중남미 등지의 생산 및 설비투자에 따른 수요 지속과 전략시장 수출 확대 및 공작기계류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AI 등 혁신기술 탑재 제품 출시로 인한 국내산 대형가전 제품의 경쟁 우위 지속과 미국 등 주요 시장 내 친환경 정책에 따른 고효율 제품 중심의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낸드 공급업체들의 감산 영향에 따른 SSD 가격의 회복에도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서버 투자 위축 등으로 수출이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율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2	2023								
	연간	연간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동차	16.4	31.1	48.9	17.1	19.7	28.7	9.4	19.7	21.5	17.9
자동차부품	2.4	-1.5	1.0	0.4	-3.7	5.9	-3.5	-3.8	3.8	-10.8
선박류	-20.9	20.1	21.6	-5.1	59.0	35.1	14.4	101.8	31.6	47.2
일반기계	2.0	4.6	5.6	6.7	8.6	7.6	9.9	10.3	13.8	2.1
철강	5.7	-8.5	-5.7	-5.5	-5.9	-11.3	7.3	-0.9	-11.1	-5.2
석유화학	-1.4	-15.9	-24.3	-13.8	2.1	-11.4	-5.0	-3.1	6.0	3.8
석유제품	64.9	-17.2	-34.8	-27.4	1.8	-32.6	-6.5	16.2	-6.1	-3.7
섬유	-4.0	-11.2	-11.2	-11.8	-6.2	-10.9	-8.5	-9.0	0.8	-10.0
가전	-7.4	-1.0	-7.6	7.0	7.5	11.7	7.3	5.7	14.1	2.9
무선통신기기	-10.4	-10.2	-20.8	-8.4	0.4	-8.6	-3.6	-4.5	8.3	-3.0
컴퓨터	-4.7	-53.3	-61.6	-48.1	-31.7	-54.7	-53.9	-30.6	-29.4	-34.5
반도체	1.0	-23.7	-34.8	-22.6	10.4	-20.6	-13.6	-3.1	12.9	21.7
디스플레이	-1.1	-12.1	-16.5	1.2	10.8	4.1	4.0	15.5	5.9	1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b>부록</b>	<b>2024년 7대 국내 트렌드</b>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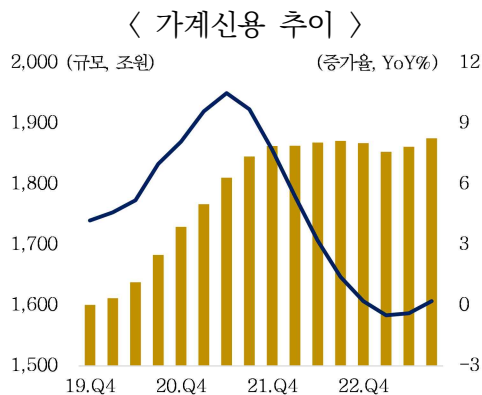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2024년 1월)

- 2024년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의 종료와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 하에 경제성장과 사회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2024년 7대 국내 트렌드의 키워드로 『NEW PATH to Prosperity』를 제시
- (성장) Nose Down on Growth - 중장기 저성장 국면의 시작
  -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진입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코로나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는 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
  - 한국경제는 대규모 경제위기 후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이 2.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노동·자본 등의 양적 생산요소 확충, 기술·인적자본 등의 질적 생산요소의 경쟁력 강화 등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경기) End of COVID-19 Business Cycle - 코로나발 경기 사이클 종결
  - 코로나 팬데믹이 유발한 제12 경기순환기가 종료되면서 2024년은 제13 순환기의 경기확장 국면에 위치하는 상저하고의 경기 추세를 보일 전망
  - 현재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경기회복의 양상은 수출이 주도하고 점차 내수 부문으로 그 온기가 확산되는 경로가 예상
  - ‘물가 안정’의 통화정책 기조와 ‘건전성 확보’의 재정정책 기조로 경기회복 속도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어 경기부양책을 통한 회복 국면 조기 안착이 절실
- (정책) Woes of the BOK - 한국은행의 고민
  - 美 연준의 피벗,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높지만, 인플레이 우려와 高부채 수준에 대한 경계, 한미 금리 격차의 정상 수준 확보 등으로 인하 시기 및 속도 결정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
  - 2024년 2분기 전후로 美 연준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하 시작 가능성이 대두되었으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가능성
  - 통화정책은 추세적 금리 인하 속 다양한 대내외 여건 고려, 최근 금융시장의 높은 불안정성 감안 등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주력
- (시장) Productivity as Key to Boosting Growth Potential - 성장 잠재력 핵심 요인으로서의 생산성
  -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수요 둔화 등으로 유발되는 저성장 장기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증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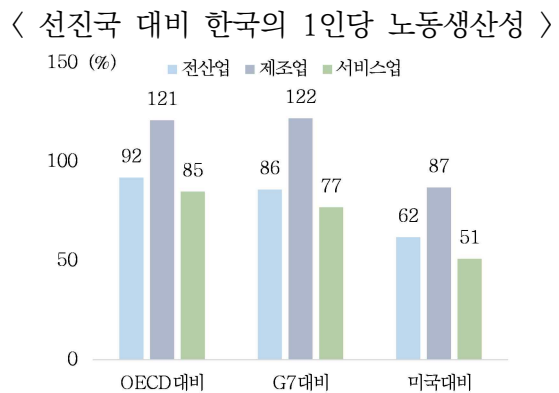
-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특히 서비스업 생산성이 낙후되어 있어 제조업과의 격차가 상당
-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 제고 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산업구조 전환 등을 통해서 생산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

#### □ (산업) Asymmetric Investment Scale - 대내외 투자의 불균형

- 미·중 경제 블록화, GVC의 DVC로의 전환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 영향으로 인한 한국경제의 자본유출입 격차 급증 문제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우려
- 국내 투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국제적 신기술·신산업 허브 국가화 도모 등 한국으로의 투자유인 증대 노력이 필요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주: 각국 구매력을 고려한 PPP 달러 기준(2021년).







































#### □ (사회) Ten Million Elderly Population - 노령인구 1,000만 명 시대

- 2024년 노령인구 1,000만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노령인구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노동력 활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될 전망
-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2번째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면서 고령층 부양을 위한 사회비용 급증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할 우려
- 고령층의 주거 인프라, 공적·사적 연금 시스템 확보 등 실효적 사회안전망 확보와 고령인구 노동력 활용 및 생산적 복지 확립 기초 구축에 노력

#### □ (남북경협) Heightened Tension, Yet the Possibility of a Turnaround - 긴장 고조 속 관계 전환 가능성

- 북한의 강대강 및 정면 대결 기조 유지로 과시성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각종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관계 전환 모멘텀이 마련될 가능성 존재
- 북핵 문제 장기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 지형 변화, 中·北 간 움직임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 관계의 개선 시를 대비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가능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1.29일 )	( 1.30일 )	( 1.31일 )	( 2.1일 )	( 2.2일 )
	 12월 실업률  12월 무역수지(수)  1월 경제제감자수  23.4분기 실질GDP (예비치)  연준 FOMC(~1.31일)	 12월 산업생산(잠)  12월 소매판매(잠)  1월 소비자신뢰지수  12월 산업활동동향	 1월 소비자물가(예)  12월 실업률  1월 ISM 제조업지수  1월 수출입통계	 1월 고용보고서  1월 소비자물가
( 2.5일 )	( 2.6일 )	( 2.7일 )	( 2.8일 )	( 2.9일 )
 12월 소매판매  1월 ISM 서비스업지수		 12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2월 무역수지	 1월 소비자물가	
( 2.12일 )	( 2.13일 )	( 2.14일 )	( 2.15일 )	( 2.16일 )
	 1월 소비자물가	 12월 산업생산  23.4분기 실질GDP (수정치)	 23.4분기 실질GDP (잠정치)  12월 산업생산(수)  12월 소매판매(수)  12월 수출입통계  1월 산업생산  1월 소매판매	 1월 생산자물가  1월 고용동향
( 2.19일 )	( 2.20일 )	( 2.21일 )	( 2.22일 )	( 2.23일 )
 12월 기계수주	 2월 소비자동향조사	 1월 무역수지(잠)  1월 경기선행지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월 생산자물가	 1월 소비자물가(수)	